

연암 박지원의 <서이방익사(書李邦翼事)>를 통해 본 조선후기 해외인식*

신상필**

— <차 례> —

1. 해외 정세에 대한 조선의 관심
2. 이방익 표류 사실의 대략과 연암의 저술 배경
3. <서이방익사> 서술의 성격과 특징
4. ‘按說’에 구성된 연암의 해외 관련 저술의 의도와 이면
5. <서이방익사> 탄생의 주변 -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동아시아의 한편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은 중국을 통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는 육로를 통한 대외 교류라는 측면에서 비롯된 전통시기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조선은 해외에 대한 정보를 갈구하고 있었다. 이때 우연한 기회로 표류에서 살아남은 귀환자들의 대외 정보는 당대 지식층의 비상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연암 박지원이 정조(正祖)의 명으로 저술하게 된 <서이방익사>는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이다. 이방익이라는 인물이 표류를 당해 대만으로부터 중국의 강남과 북경을 거쳐 귀환한 경로는 얻기 어려운 새로운 견문에 다름 아니었다. 다만 박지원은 이를 문체반정과 연계된 정조의 어명, 혹은 이문(異聞) 차원의 흥미로운 기록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는 이방익이 경험한 조선후기 중국의 강남 지역과 그 주변의 상황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읽고자 하였다. 또한 이방익의 귀환 경로를 통해 조선조 사대부 계층의 북벌에 대한 헛된 바람에 다시 한 번 문제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1-AM0059)

**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HK교수

제기한 것이다. 이는 박지원을 비롯한 박제가, 이서구, 유득공, 서호수 등 북학파(北學派)의 지적 관심이 표류 귀환자의 생환 과정과 결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대외 인식과 상호 교섭의 현장을 재확인해 보았다.

주제어 연암 박지원, <서이방익사>, 표류, 해외 인식, 북학파, 북벌

1. 해외 정세에 대한 조선의 관심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중국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며 이로부터 中華의 文明과 교류하는 지속적인 통로로 삼았다. 조선의 경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속에서 事大라는 기본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明에서 淸으로의 교체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사행만은 끊이지 않았다. 海路 사행은 北京이 수도가 되어 육로 사행으로 바뀌기 이전까지 중요한 통로였으며 明朝에 와서야 육로가 使行의 경로로 일반화되었다. 그럼에도 명나라와 대치한 後金이 요동 평야에 웅거하자 조선은 明과의 단절된 임시방편의 교통로로 해로를 통한 사행을 이어나갈 정도였다. 1624년(인조2) 의주 아래쪽에 위치한 宣沙浦에서 산동반도의 登州로 이덕형 일행의 謝恩兼奏請使가 이용하였던 해로가 그것이다. 대략 1621년부터 1632년 사이의 기간이었다.

해로사행이 유일한 중국과의 통로였던 공민왕 21년(1372)에 정몽주가 참여한 사신 일행이 귀국길에 난파되어 겨우 목숨을 건진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을 내왕한 것은 외교적 중요성과 함께 해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외교사절들은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정보 수집은 물론 개인적 차원의 관심을 ‘朝天錄’, 혹은 ‘燕行錄’의 기록으로 남겨 보다 구체적인 정세와 정보를 전하는 역할도

겸하곤 하였다. 사실 수다한 연행록의 기록은 대개 육로 사행의 경험을 남긴 것이었다. 그 경로도 중국에서 정해진 노정을 따랐기에 기록은 대체로 유사한 과정이 서술되었고, 따라서 연행록의 관점은 기록자의 인식수준에 좌우될 확률이 높았다. 이 점에서 중국 북쪽의 사정은 실체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중국의 남쪽과 내륙 지역에 대한 정보는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외를 체험할 수 있는 사례로는 魯認(1566~1623)의 『錦溪日記』와 같이 전쟁 포로로 일본에 거처하다 귀환하여 해외의 사정을 전하는 특별한 경우가 드물게 있었다.

여기에 이와 유사한 해외 체험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해상에서 조난을 당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백성들, 또는 제주에 관원으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표류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들 난파된 선박은 일반적으로 해류와 풍향에 따라 일본과 중국 남부에 표류되곤 하였다. 제주도에 부임했던 崔溥(1454~1504)가 부친상으로 귀가하던 중 표류를 당했던 기록인 『漂海錄』(1488)이 대표적이다. 조난 당사자로서는 비극이었겠지만 의도치 않았던 그의 해외 체류 경험은 당대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¹⁾ 사지에서의 생환이라는 기행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해외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그에 따른 정보가 중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해외 표류 체험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례로 1796년 제주 앞바다에서 조난을 당해 대만에 속한 澎湖島에 표착해 북경을 거쳐 생환한 李邦翼의 경우가 있다. 대만으로부터 중국 廈門을 경유해 浙江과 江南 지역의 水路를 따라 산둥 지역과 북경을 거친 귀환의 여정이었다. 19세기를 목전에 둔 이방익의 생환은 당시로서는 체험하기 힘든 대만, 복건성, 강남 지역을 견문하고 있음에 특색이 있다. 앞서 이덕형의 해로사행만 해도 산둥성을 경유할 수 있었으나 그 이남 지역에 대한 경험은 불가능하였다.

1) 이에 대한 전반적 연구는 윤치부의 『한국해양문화연구』(태학사, 1994) 참조.

그래서인지 이방익은 표류 다음해 윤6월에 의주를 거쳐 귀국하면서 정조를 알현하게 된다. 이방익과 정조의 만남은, 자국 백성의 표류 생환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위문이었겠지만, 중국 강남 지역에 대한 관심이 보다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정조의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방익의 표류와 중국 기행의 과정을 소상히 하문한 정조는 마침 沔川郡守에 부임하려던 燕巖 朴趾源(1737~1805)에게 이방익의 체험을 기록으로 정리하도록 명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燕巖集』 권6에 실린 <書李邦翼事>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이방익의 표류 사실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의 소개와 함께 박지원의 지리고증이 논해진 바 있다.²⁾ 이를 통해 이방익과 관련된 조선조의 대외 정보에 대한 인식과 관리는 물론, 연암을 비롯한 북학파의 지리고증과 의식을 확인하게 된다. 다만 이는 자료의 정리와 이를 통한 연암 일파의 고증에 치중하여 <서이방익사>를 서술한 연암의 대외인식의 일단을 놓치고 있다. 일견 <서이방익사>의 존재는 조선 조정의 해외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謝恩을 위해 알현한 연암과 연계된 우연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서이방익사>의 미덕은 우연한 해외 체험의 정보에 연암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가 주요한 관건이 아닌가 한다. 열하에의 경험과 함께 국제 정세에 민감한 관심을 지닌 연암이었으니 대만과 강남을 경험한 이방익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암은 해외 표류 생환의 경험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특이하게 접근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이방익의 생환과 관련해서는 가사 <표해가>가 고전시가 연

2) 이와 관련하여 김문식, 『조선 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새문사, 2009), <제4장, 朴趾源의 중국지리 고증>에서는 이방익의 생환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의 성격과 경위를 자료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이는 가사의 양식과 서사적 표현 양상에 주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고는 박지원의 저술 의도와 관련하여 작품 성립의 과정에 담겨있는 조선후기 지식인의 해외인식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방익 표류 사실의 대략과 연암의 저술 배경

이방익은 제주 출신의 무인으로 그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표류 끝에 생환한 특이한 여정 덕분이다. 해외 체험이라야 사행이 거의 유일하였고, 그 노정조차 자유롭지 못해 중국이 정한 길로만 다녀야 하던 시절이다. 그런데 그가 표류한 지역은 사신의 노정이 닿을 수 없는 곳이니 조선 사람으로서는 매우 드문 경험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보니 중국 강남 지역의 정보와 그곳의 실정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 표류 생환자의 정보가 귀하기 마련이었다.³⁾ 현재 전하는 이방익의 표류 사실에 관한 문헌 기록은 다음과 같다.

- (1) · 『同文彙考』 <丁未知會福建漂人出送咨>
· 『日省錄』 1797년 윤6월 10일조. <義州府尹沈晉賢以濟州漂人李邦翼等從大國出來馳啓>
· 『승정원일기』 정조21년 윤6월 21일 조
- (2) · 박지원, <書李邦翼事>
· 이방익 가사 <표해가>⁴⁾

3) 반윤홍, 「조선후기 비변사의 국외정보 파악 양상」, 『한국사학보』 20, 고려사학회, 2005. 비변사는 전쟁 포로의 귀환자와 외국인 표착자 등의 심문을 통해 해외 정세와 정보를 수집하였다.

· 서강대 소장 <漂海錄>⁵⁾

(1)의 세 자료가 이방익의 귀환과 관련된 국가의 공식적 기록이라면, (2)의 세 자료는 그의 표류 귀환을 다룬 문학적 기록이라고 하겠다. 『동문회고』는 福建省에 표착한 이방익 일행을 중국 관원이 그 표류 사실과 경위에 대해 문초한 내용이며, 『일성록』의 기록은 중국으로부터 표류인을 인계받은 義州府尹 沈晉賢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에 제출한 문건이다. 『승정원일기』는 이방익의 생환 사실을 전해들은 정조가 그를 직접 불러 下問한 내용이다. 의주부윤 심진현의 조사에 따르면 이방익이 諺書日記 3件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현재로서는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방익의 경우 이 기록을 바탕으로 관원과 정조의 물음에 답변했을 것이다. 아무리 예외적인 경험이라도 노정에 대한 소소한 내용을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 쉽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만큼, 이 기록이 이방익의 생환 사실에 대한 신빙성과 풍성한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상의 기록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처음 바다로 나가게 된 연유도 휴가를 얻어 서울에 觀親(<서이방익사>)하려 했다거나, 牛島에 모신 어머니 묘소로 가기 위해서(『일성록』) 라거나, 휴가로 근친하며 船遊를 기약(<표해가>)하였다는 등 일치하지 않는다. 여행의 노정이

4) 강전섭, 「李邦翼의 『漂海歌』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20집, 한국언어문학회, 1981; 최강현, 「표해가의 지은이를 살핌」, 『어문논집』 23집, 민족어문학회, 1982; 성무경, 「耽羅居人 李邦翼의 <漂海歌>에 대한 研究」, 『탐라문화』 12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2; 김운희, 「<표해가>의 형상화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5) 근래 새로운 자료가 전상욱, 『이방익 표류 사실에 대한 새로운 기록』(『국어국문학』 159집, 국어국문학회, 2011.)에서 소개되었다. 새로운 자료임에는 분명하나 그 내용의 구성적 성격에 가사 <표해가>와의 관련성을 놓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할 것이다.

나 일시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욱 심하다. 이는 진술의 대상이 중국 관원, 義州府尹, 正祖 등으로 달라졌고, 이방익이 발언한 상황도 표착, 입국, 귀환 시점으로 차이가 나는 등 가변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 때문이다.⁶⁾ <표해가>의 경우 생환 후 과거의 험난한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점에 가사 양식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관공서의 공식 기록과도 역시 성격을 달리 한다. <표해가>는 문학적 감흥이 중시되는 만큼 표류 당시의 난관과 고난에서 비롯된 우려와 걱정, 그리고 표착의 안도에 이은 귀로의 다양한 감정은 물론 무사 귀환의 감격 등 정감적 측면에 비중이 놓여 있어 그만큼 일정에 대한 객관 사실에 덜 민감한 편이다.

이방익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당대는 물론 현재의 연구자에 계도 가사 <표해가>이다. 또한 최근 새로운 자료로 소개된 <표해록>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보면 사실 <표해가>와 관계되어 있다. <표해록>은 전문이 가사 <표해가>를 보다 실감있게 부연하여 산문화한 작품임이 확인되는 때문이다. <표해가> 전반에 사용된 어휘와 표현 형태가 <표해록>에 그대로 부합하면서 가사에서 압축된 정황이 보다 구체화되었을 뿐이다.⁷⁾ 다만 <표해록>의 결말을 “칠월초이일의 전쥬로 느려가 부임후후

6) 이와 관련하여 김문식의 연구에서 자료의 세부적 차이를 비교한 바 있다.

7) 이 자료를 소개한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풍랑을 만나는 대목의 상동점을 표시해 보면 <표해가>의 기본 구성에 한문투를 음차, 혹은 풀어쓰거나(진한 부분), 소략한 부분을 부연 설명(일반 표기 부분)하고 있어 가사를 서사적 글쓰기로 바뀌놓은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西北間 一陣狂風, 忽然이 이러나니. 泰山갓흔 뉘흔물결, 하늘에 다향고나. 舟中人이 慌忙하야, 措手할길 잇솔소냐. 밤은점점 김허가고, 風浪은 더욱甚다. 萬頃蒼波 一葉船이, 가이없시 썩나가니. 슬프다 무삼罪로, 하직업슨 離別인고.”(<표해가>)

“서북간으로서 일진광풍이 이러나매 태산갓튼 물결이 하늘의 다하시니 舟中人이 황망하여 밋쳐 손을 놀리디 못허니 아모리 용뎡흔들 었디 살기를 브라리오. 점점야심하고 풍낭은 갈수록 흥심허니 일엽어정은 바람과 물결을 조흐 7업시 가니 슬프다 초신이 전심의 무솔죄로 하직업슨 니별인고.”(<표해록>)

명심찰직호여 명정선치호고 체기상경호여 부귀로 디내다가 년만선종호니라”고 하여 정조가 그를 전주 中軍으로 배수했다는 점과 이방익의 죽음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는 <표해록>이 이방익의 죽음이 분명한 시점에서 <표해가>를 바탕으로 서사화한 후대의 이본임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방익의 생환과 함께 구전된 가사 <표해가>의 성행과 관심이 <표해록>의 출현으로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가사인 <표해가>가 문학성과 함께 가창이라는 향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대해, <표해록>은 언문 해독이 가능한 독서층의 관심을 고려한 결과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만큼 이방익의 표해와 귀로에 걸친 난관, 그리고 새로운 풍물에 대한 세간의 흥미와 관심도를 말해준다고 하겠다.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방익이 1796년 9월 제주도 앞바다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 10월 초 대만 중부 서쪽의 澎湖島에 표착해 12월 초 廈門으로 건너가 복건성(1월), 절강성(3월), 산둥·북경(5월)을 거쳐 의주·한양(6월)으로의 10개월에 걸친 특별한 해외 체험을 가졌다는 분명한 사실에 있다. 또한 그의 귀환 이후 연암이 정조의 명을 받아 표류 과정을 기술함에 이르러서는 문체정책과 관련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정사년(1797. 연암 61세) 7월, 沔川 군수에 제수되었는데, 특별히 먼저 入侍하고 뒤에 謝恩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어전에 나아가니 상이 하교하였다.

8) 이는 이방익의 표류 사실이 항간에 미친 관심의 파장에도 관련되며, <표해록>이 매우 단정한 궁서체로 기록되고 있어 여성 독자를 고려한 측면이 간취된다. 예컨대 왜란에서 호란으로 이어진 동아시아 전란의 와중에서 崔陟 가족의 상봉이 <崔陟傳>은 물론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鄭生의 사적으로 기록되고, 후대에 다시 국문본이 출현하는 경우를 상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이 국문으로 되어 있는 등 조선 후기 여성, 혹은 국문 식자층의 관심이 해외와 연계되고 있음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지금 이방익의 표해와 관련된 기록물의 출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내가 지난번에 文體를 바꾸라고 신칙했었다. 과연 바꾸었느냐?” (중략) 상이 웃으며, “내가 근래 하나의 좋은 글감을 얻었다. 너를 시켜 한 편의 好文字를 짓게 하려고 전부터 생각했다.”⁹⁾

이 대목에서 이방익의 표류 기록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표류 생활에 관계된 기록은 관서의 공문서와 생활자 개인의 기록에 그치곤 한다. 그런데 이방익의 경우, 연암과 연이 닿아 <서이방익사>라는 기록이 더해질 수 있었다. 정조가 사은하기 전에 먼저 입시하게 한 이유도 기록을 특별히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매우 특이한 사례이자 건물을 특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과정록』에 의하면 여기에는 정조의 문체에 대한 정책적 측면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정조가 연암에게 이방익의 표류 사실을 저술하게 한 것은 문체에 대한 반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 점에서 <서이방익사>의 저술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미 1780년 사행 이후 지은 연암의 『熱河日記』는 문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열하일기』에는 대외 정세에 대한 판단과 함께 국내 지식층의 고식을 향한 풍자와 해학이 촌철살인의 비판적 언사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의고문파와 공안파를 절충한 연암의 法故創新論에 기반한 『열하일기』는 淸의 연호와 백화체 표현, 조선식 한자어 등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燕巖體’, 즉 소품체로 지적받는 과장이 일었다. 이러한 문단 상황에서 연암은 安義縣監 시절(1791~1796) 문체반정에 따른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¹⁰⁾ 정조는 1797년 면천군수에 연암을 제수

9) 박종채 저, 김윤조 역주, 『역주 과정록』, 태학사, 1997, 153~154쪽, “丁巳七月, 除沔川郡守, 有先入侍後謝恩之命. 及進前, 上下教曰: ‘吾向以文體變改之意爲飭矣. 果變改乎?’ (중략) 上笑曰: ‘吾近得一好題目, 欲使汝製出一編好文字者久矣.’”(원문 343쪽)

하는 과정에서 표류 생활한 이방익에게 전해들은 노정을 문체 전환의 독려에 마땅한 ‘좋은 글감’이라 여기고 사은 차 들른 연암을 불러 ‘好文字’의 과제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1792년 단행한 문체반정의 연장선에서 면천군수로 나가는 연암에게 과제를 맡긴 셈이다.¹¹⁾ 이렇게 <서이방익사>는 정조가 이방익을 접견하고(1797년 윤6월 20일) 얼마 지나지 않은 연암의 謝恩(1797년 7월)이라는 매우 절묘한 시점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3. <서이방익사> 서술의 성격과 특징

이처럼 <서이방익사>의 저술에는 우연이라고 할 만큼 미묘한 시기에 이방익의 표류 생활과 정조, 연암의 문체반정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다. 이제 연암의 저술 현장에 보다 가까이 접근해 보기로 하자.

제주 사람 이방익이 바다에 표류한 일의 首尾를 상세하게 갖추어 들려주시고 나서, “네가 잘 들었느냐?”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경연에서 말한 내용이 당일 입시하였던 승지에게 있을테니 官衙에 내려 보내도록 하겠다. 한가할 때 잘 지어서 올려 보내라.” 하였다.¹²⁾

10) 김명호, 『박지원-북학을 주창한 근대 리얼리즘의 선구자』,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11) 사실 이 시기 연암의 문체에 대한 정조의 관심은 지대하였고, 이는 그의 재능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박종채, 같은 책, 136~137쪽, “선군이 글을 지음에 왕의 명령을 받들어 지어 바친 것이 앞뒤로 모두 네 차례였으니, 이 두 작품 및 이방익의 일을 기록한 것과 농서이다.[先君爲文, 承命製進者, 前後凡四, 此二作及李邦翼書事·農書也.]”(원문 336쪽) 해당 작품은 박명원의 묘지명인 『三從兄綏祿大夫錦城尉兼五衛都總府都總管贈諡忠僖公墓誌銘』, 이덕무의 행장, <서이방익사>, 『課農小抄』가 그것이다.

정조는 연암에게 사은하기 전에 입시토록 하여 친히 이방익의 표류 전말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저술을 하교하였다. 이처럼 정조의 명으로 이방익의 표해 사실을 撰進하게 되었으니 연암으로서는 글에 대한 논리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연암은 노정과 기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 “배를 같이 탄 8명 가운데 방익만이 문자를 알기는 하였으나, 겨우 路程만을 기록해 놓았을 뿐이요, 또 기억을 더듬어 입으로 아뢴 것도 왕왕 次序를 잃”¹²⁾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방익 표류 사실에 대한 저술에는 왕명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함께 문체에 대한 정조의 관심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다. 이 점에서 정조의 저술 요청에는 연암의 문체에 주목하는 반면, 표해 사실에 관련된 특별한 요구나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방익이 견문한 해외 정보나 동향에 대한 관심보다 “須善爲 撰著以進”¹³⁾이라는 저술 자체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연암 역시 그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우선 연암은 바다에서의 표류와 귀환 사건에 대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그 시기와 경위 및 여정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정조20년(1796) 9월 21일 서울로 觀親을 위해 바다를 건너다 조난당해 10월 6일 팽호도에 닿아 대만으로 송치되고, 廈門을 경유해 福建, 浙江, 江南, 山東을 거쳐 北京에 도달하여, 遼陽을 통해 다음해 윤6월 서울에 도착하니 수륙의 노정이 만여 리가 되었다는 정보이다. 이어서 정조의 이방익 접견과 연암이 저술을 부탁받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여 자신이 證正의 책임을 맡았다고 소개한다.

12) 박종채, 같은 책, 154쪽, “因親爲備說濟州人李邦翼漂海事, 首尾纖悉. 又教曰: ‘爾詳聽未?’ 又教曰: ‘筵說在當日入侍承宣處, 當使之下送官衙, 閑暇時, 須善爲撰著以進也.’”(원문 343쪽)

13) 박지원, <서이방익사>, “同舟八人, 惟邦翼曉文字, 然僅記程途, 又追憶口奏, 往往失次.”

그런데 연암은 이에 앞서 이방익 표해 사실을 바로 언급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를 두어 지나칠 수 없는 내용 두 가지를 기술하고 있다. 하나는 五衛將을 지낸 이방익의 부친 李光彬에 대한 사연이다. 공교롭게도 부친 역시 무과 시험에 응시하려다 長崎島에 표류당해 귀환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연암은 이방익 부친의 표류 과정에서 만난 일본인 醫員이 딸과 재산으로 귀국을 만류했지만 財色으로 부모의 나라를 버릴 수 없으며 일본 의원의 청탁을 뿌리친 일화를 소개하여 이들 부자의 ‘烈士之風’을 추켜세웠다. 다음으로 ‘耽羅’라는 지명의 유래와 중국 宋 시기 표류 사례를 여러 역사서와 자료로 소개한다. 이방익의 표류 생활의 경계로부터 父子의 연이은 조난과 제주도의 지역적 특색 및 역사적 개략을 기술해 이방익의 구체적인 표류 사실로 이어지는 논리적 전개 방식을 구성한 것이다. 이로써 이방익의 표류 현장에 개입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정조는 이방익과 접견한 당시의 기록에 근거하도록 표류와 귀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연암의 부임지인 면천 관아로 보내주었다. 연암은 이방익을 만나지 못했기에 저술의 자료를 경연 기록, 즉 『승정원일기』 21년 윤6월 21일 조의 이방익 구술 내용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다.¹⁴⁾ 그리고 정조의 요청 역시 구술 자료에 대한 체계 잡힌 조리 있는 문장의 완성에 목적이 있었다. 이점은 실제 『승정원일기』의 이방익 기술 내용과 <서이방익사>의 “邦翼奏曰” 대목의 원문을 직접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故八人同乘彩色舟，行五里許，則連江左右，有數百彩船。船上皆有彩閣，江邊卽馬宮衙門也。三門內，高唱三聲畢，有一官員導入八人。馬宮大

14) 이방익 부친의 사적은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이방익과의 면담시 언급된 내용을 들려준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점에서 『승정원일기』의 자료는 이방익의 표류와 귀환 여정에 관한 내용만 참조된 것으로 보인다.

人, 着紅袍, 坐交倚, 年可六十餘, 美鬚髯, 好身手. 階下建紅日傘, 侍立臺上者, 左右八十人, 着有紋緞衣, 或藍或綠, 或佩劍, 或負羽. 臺下羅卒三十人, 着紅衣, 持杖或竹棍杖. 黃龍旗二雙, 鍬釘一雙. 八人等引入臺上, 馬宮大人問曰: “爾等以何國人? 何事登舟? 何日遇風? 幾日到此?” 答曰: “身是朝鮮國全羅道全州府人. 貿米次登船, 猝然遇風, 出沒浪中, 莫知所向者十六日, 始到此地矣.” 大人曰: “情境可矜, 退去安歇.” 因退出. 一處有一大厦, 房中以錦緞鋪陳, 各贈竹簟枕. 每日兩時, 各給米飲一器, 雞膏一器. 又給香砂六君子湯兩時, 如是者, 凡十餘日. (『승정원일기』 정조21년 윤6월 21일 조)

八人同乘彩船, 行五里許, 詣馬宮衙門. 沿江彩船數百艘, 江邊畫閣, 卽衙門也. 門內高唱三聲, 導入八人. 馬宮大人, 紅袍椅坐, 年可六十餘, 美鬚髯, 階下建紅傘. 臺上侍立者, 可八十人, 皆紋緞衣, 或藍或綠, 或佩劍, 或負羽. 臺下朱衣兵卒, 可三十人, 皆持杖, 或竹棍. 黃龍旗二雙, 銅鉦一雙. 引八人, 升臺上, 馬宮大人問漂海之由, 答以朝鮮全羅道全州府人云云. 退出, 有大厦, 鋪設皆錦緞. 各贈竹簟枕, 每日給米飲一器, 雞膏一器. 又給香砂六君子湯兩時. (<서이방익사>)¹⁵⁾

- 15)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이방익사>의 번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해석을 따랐다. “여덟 사람이 함께 채선(彩船)을 타고 5리쯤 가서 마궁(馬宮)의 아문(衙門)으로 나아가니 강물을 따라 채선 수백 척이 널려 있고 강가에는 화각(畫閣)이 있는데 바로 아문이었습니다. 문 안에서 소리를 높여 세 번 외치는 우리 여덟 사람을 인도하였습니다. 마궁의 대인(大人 고위 벼슬아치)이 홍포(紅袍)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나이는 예순 남짓하고 수염이 좋게 났으며, 계단 아래에는 붉은 일산을 세우고 대상(臺上)에는 시립(侍立)해 있는 자가 80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무늬 새긴 비단옷을 입고 있었는데 혹은 남색 혹은 녹색이었으며, 혹은 칼을 차고 혹은 화살을 짊어졌고, 대하(臺下)에는 붉은 옷 입은 병졸이 30명쯤 되는 데 모두 몽둥이를 쥐고 있었으며 간혹 대나무 작대기도 쥐고 있었습니다. 황룡기 2쌍을 들고 징 1쌍을 울리면서 우리 여덟 사람을 인도하여 대상에 올라가니 마궁의 대인이 바다에 표류된 연유를 묻기에, 우리는 조선 전라도 전주부(全州府) 사람으로서 이리이러한 연유로 표류하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물러나오니, 큰 건물이 있는데 바닥에 깔 것이 모두 주단이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대로 만든 자리와 베

대만 중부 서쪽의 팽호도에 표착한 이방익 일행이 그곳 아문에서 현재의 馬公市까지 배편으로 인도되어 조사를 받는 대목으로 동일 글자만 표시해 보았다. 연암은 이방익의 표류 사실을 대체로 경연의 기록에 근거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정한 변모가 확인된다. 먼저 이방익의 진술 기록에 쓰인 표현을 이용하되 보다 간단명료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史官이 이방익의 진술을 즉석에서 가감 없이 기록했던 서술의 투박함을 記事文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구술 기록을 정조에게 찬진하기 위한 문장으로 일목요연하게 다듬음으로써 차칫 산만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표해의 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때문이다. 이렇게 연암의 문학적 정제를 거치며 전체적으로 대략 ⅔ 정도의 분량이 산삭됨과 동시에 순정한 산문투를 갖추게 되었다.

연암은 기본적으로 표류로부터 귀환 여정의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여기에 이방익의 특수한 견문과 지역적 습속에 주목하였다. 이에 반해 『승정원일기』에서는 직접 인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방익의 개인적인 감상이나 주관적 평가 등을 <서이방익사>에서는 간접인용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배제하고 있다. 이는 기사문의 성격이자 하나의 찬술 방침이었다. 연암은 표류 관련 기록에서 사건, 즉 여정과 그 주변 정보를 가장 중요한 수록 내용으로 인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용문에서 보듯이 연암은 마궁대인의 질문과 표류인의 대답에 이어진 위문 내용을 생략하고, “조선 전라도 전주부 백성”이라는 내용만 남겨 두었다. 표류인들에게 으레 묻는 질문 사항을 “漂海之由[표해 경위]”로 간략화하고, 이방익이 답변한 표류와 표착 과정은 이미 기술했기에 생략한 것이다. 이 점에서 연암은 제주사람인 이방익이 자신을 전주사람으로 답변한 대목을 특기한 셈이다.

개를 주고 날마다 미음 한 그릇과 닭고깃국 한 그릇을 주고 또 향사육군차탕(香砂六君子湯)을 두 때씩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독자는 제주인 이방익의 언행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출신 지역에 대한 답변은 제주지역 표류인들의 습속이었기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제주로 표류해 온 琉球國 상선을 약탈하고 살상했다는 俗傳과 관련된 것으로, 제주인은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전주·靈光·康津·海南 등지의 백성으로 출신을 숨겨 소개한다는 당시의 관행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표류한 선원들의 습속을 이해하기 어려웠기에 별도의 해설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이방익의 사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문단을 구분해 따로 설명하는 “略加證正[생략, 부연, 정정]”의 공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연암은 이방익의 진술을 사건에 따라 단락별로 나누어 “邦翼奏曰”로 소개하고, 이어서 내용에 대한 변증과 해설을 “살펴보건대[按]”라는 말로 구분해 설명하는 “按說”의 방식을 도입해 저술의 체계로 삼았다. 더구나 대만과 중국 강남 지역 등 일반인의 경험이 없던 지역에 대한 이방익의 진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자면 그에 따른 정보와 해설이 필요했던 것이다. 연암은 이방익의 진술을 조리정연하게 정리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변증으로 해당 단락을 소개·설명하는 방식을 기본적인 서술 방식으로 삼았다.

이렇게 구성된 서술 기조에 따라 연암은 자연스럽게 관련 자료의 수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제주 관련기록으로 『北史』 <百濟傳>(권94), 『新唐書』 <東夷傳>(권220), 중국 宋의 문인 范成대가 편찬한 『吳郡志』 <異聞篇>(권46), 韓愈의 <送鄭尚書序>(『昌黎先生文集』 권21), 『高麗史』 등을 인용하고 있다. 이로써 제주의 고향인 ‘탐라’가 ‘섬나라’라는 말의 다양한 변형이며, 그 지역의 관련 습속과 제주민의 표류 사례가 예로부터 빈번하였음을 거론하였다. <서이방익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이방익의 체험이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준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선에서 접근하기 힘든 대만과 중국의

절강, 강남 지역에 대한 새롭고 정확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소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연암의 저술은 이미 주어진 특수한 표류 사실에 문헌자료를 통한 소개와 고증 작업을 중심으로 하나의 인문지리적 정보서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때 <서이방익사>는 바로 '按說'에 초점이 놓이며, 이것이 연암의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다. 또한 안설은 이방익 표류의 여정과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먼저 제주민들의 해외 표류의 前史를 역사서에서 인용하며 소상하게 언급함으로써, 이방익이 일반적 표류 방향인 일본이 아닌 대만에 표착했음과 그로 인해 중국 복건에서 절강, 강남, 산둥을 거치는 노정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특징적으로 부각하였다. 따라서 연암의 고증 역시 대만과 절강, 강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안설의 분량으로 볼 때 특히 이방익이 표착한 팽호도와 대만부, 중국 江蘇省의太湖에 대한 소개가 가장 풍부하다. 팽호도에 대해서는 그 대체적 지형과 역사, 厦門에서의 바람에 따른 뱃길 등을 소개하였다. 대만부에 대해서는 『明史』 <鷄籠傳>(권323)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관련 습속을 기술하고 있다. 태호의 경우 이방익이 호북성과 호남성의 경계가 된 洞庭湖를 유람하였다고 진술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특별히 언급한 것이다. 이방익이 동정호를 유람하기란 귀환 노정상 불가능하며 태호의 별명인 東洞庭으로 인한 착오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태호의 여러 지류와 섬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수록하였다. 연암 역시 해당 지역을 체험한 경험이 없으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의 객관적인 인문지리적 이해와 관심을 보여준다.

연암은 지역의 습속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방익이 자신을 전주부 사람으로 진술하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연암은 이에 대해 李重煥의 『擇里志』 <卜居總論·山水條>에서 인조조 유구 세자가

제주에 표류되어 죽음을 당한 사실, 그리고 그가 남긴 한시의 기록을 인용하며 표류된 선원들의 습속을 설명하지만, 연암 자신은 이를 근거가 희박한 流傳으로 소개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실제 발생했던 사실이다. 『實錄』에 의하면 光海君 5년(癸丑, 1613) 1월 28일(丙戌) 조에 제주목사 李箕賓과 관관 文希賢이 중국·일본·유구의 상인이 승선한 배가 제주에 표착하자 黃繭絲 1백 50석과 明珠·瑪瑙 등의 보화 1천여 개를 약탈하고 이들을 모두 죽여 유배에 처한 사실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구의 사신이 이기빈에게 편지를 보냈다고도 하여 이중환의 한시 기록과도 연결된다.

仁祖 3년(乙丑, 1625) 1월 8일(丁巳) 조에 실린 이기빈의 卒記에는 유구의 사신이 아닌 유구국 왕자가 보물을 싣고 표류한 것으로 바뀌어 있어 『택리지』의 정황에 보다 부합한다. 더구나 광해군 14년(壬戌, 1622) 5월 10일(乙巳) 조에 따르면 유구에서 제주에 원수를 갚으려 한다는 언급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류된 선원들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선원들 사이에 인식되어 자신들을 다른 지역 사람으로 가장하는 상황이 습속으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와전으로 격하시킨 연암의 언급은 정보에 대한 오류로도 생각된다. 하지만 연암은 19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조선인의 우려를 유효하지 않은 사실로 진단한 듯 하며, 이는 작품의 저술 자세와도 관계되어 있다.¹⁶⁾

이처럼 <서이방익사>는 이방익의 대만 표류라는 好材가 연암의 문체에 대한 정조의 관심과 연결되어 출현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서이방익사>는 일견 정조의 명에 따른 연암의 의례적 저술로 여겨진다. 그러나 ‘안설’에 집중된 저술 의도 속에서 해외에 대한 연암의 인식이 표출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인문지리적 저술로 이해할 수는 없다

16) 이와 같은 연암의 판단은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는 것이다. 이제 안설에 주목하여 저술의 배후에 놓인 해외 인식의 문제에 가까이 접근해 보기로 한다.

4. ‘按說’에 구성된 연암의 해외 관련 저술의 의도와 이면

사실 <서이방익사>의 서술에는 기본적 난제가 가로놓여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문체를 염두에 둔 정조의 청탁과 이방익 진술의 기록에 의지해야 하는 자료적 한계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연암은 그리 자세하거나 길지도 않으며 서술의 오류까지 발견되는 자료를 좋은 글감이라 정해 준 정조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였을 지가 관건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길지만 특별히 인용해 본다.

(1)이것은 왕명을 받들어 지어 올리는 글이므로 대충대충 통상적 관례에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옛것도 아니고 지금 것도 아닌 글로 지어야 하오 문법은 마땅히 『사기』나 『한서』와 비슷하여, 波瀾과 생색이 나야 좋겠소. (2)이방익이 말한 것이 자세치가 않고, 본 것도 찬찬히 살피지 못하는데, 사물의 이름이 잘못된 것이 많고, 일의 정황도 정확치가 않소. 유람한 산천 누대와 지나쳐 온 고을의 道里도 반드시 잘못된 사실이 많을 것이므로 한글로 된 기록을 모두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오. (3)다행히 『一統志』와 그 밖의 전기에 실린 내용에 의거해 베껴 써서 채우고 기술하여 완전히 눈으로 본 것 같이 파란과 생색을 낸다면 비록 고인의 작품 속에서 한차례 옮겨 적어도 더라도, 이것으로 저것을 징험하여 사실이 서로 맞아 떨어질 터이니 진부한 것을 신기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 가운데 있다 하겠네. (중략) (4)문체는 아마도 마땅히 『徐霞客傳』이나 『長白山記』와 같아야 할듯한데 어떨지 모르겠네. 제목은 『記李邦益漂海事』로 달아야 하는가? (5)『說鈴』과 『태평광기』는 박제가의 집에 있는 것일세. 鄭運經의 『탐라문견록』은 아마도 자기

뜻으로 미루어 부연한 곳이 많은 듯하네. (중략) 洛瑞 李書九 영감 또한 참고할 만한 文迹이 있는데, 가져올 겨를이 없었네. 부연하여 수십 길의 기이한 글을 이루어 총서 가운데 넣을 수 있다면 좋겠소. (중략) (6) 사대부들은 춘추존양의 의리에 엄격한 지라, 걸핏하면 중국에 변이 있기만을 생각하여, 먼 모퉁이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가져다 붙여 떠들기를 즐겨, 언제나 苗蠻이 강남 길을 끊어 막은 것으로 의심을 하곤 하오. 금번 이방익이 바다에 표류하여 민월 땅을 두루 뚫고 지나와 만 리에 막힘이 없었으니 그렇다면 사해가 편안하고 조용한 것을 징험하기에 충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러 의심을 통쾌하게 깨뜨린 셈이오. 이는 그 공이 진실로 보통의 한 사람 사신보다 훨씬 낫다 하겠소. (7)이 뜻을 부연하여 넣는 것이 좋겠소.¹⁷⁾

이는 연암이 처남인 李在誠에게 보내는 편지로 <서이방익사>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 연암은 (1)에서 “非古非今之文”을 지향한다는 자신의 범고창신의 문학론을 견지한다. ‘비고비금’을 언급하고 있음에서 어찌면 연암은 자신의 문체를 순정문으로 바꾸려하지 않은 듯도 싶다. 하지만 연암은 왕명에 의한 찬진임을 명백히 의식하고 있으며, 특히 『사기』와 『한서』로 자신이 지을 저술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두 역사서는 이후

17) 정민·박철상 역주, 『연암선생서간첩』 원문 및 역주, 『대동한문학』 22, 2005, 380-384면, “此是承命撰進之文, 則非可艸屮循常, 作非古非今之文. 文法要當似『史』『漢』, 波瀾生色爲妙. 彼既語焉而不詳, 目焉而未省, 名物多舛, 事狀未的, 遊覽處山川樓臺, 所經處州郡道里, 必多爽實, 不必盡從諺錄. 幸須憑據『一統志』及他傳記所載, 抄謄鋪述, 宛若目睹, 以作波瀾生色, 則雖於古人篇中, 移摹一番, 以此驗彼, 事實相符, 腐臆神奇, 要在其中. (중략) 文體似當如霞客傳, 長白山記, 未知如何. 題目以記李邦益漂海事爲題耶? 說鈴太平廣記, 在先家所有. 鄭運經耽羅聞見錄, 似多以意推演處耳. (중략) 洛瑞台亦有可考文迹, 未及持來耳. 演成數十丈奇文, 可入叢書中, 爲妙. (중략) 然而士大夫則嚴於春秋尊攘之義, [輒思中國之有變], 遐陬愚氓好爲繹騷, 常以苗蠻梗化江南路斷爲疑. 今此邦益之漂海, 貫穿闔越, 萬里無梗則足可徵四海之寧謐, 快破我東之群疑. 此其功固賢於尋常一介之使矣. 此意演入爲妙.”

역사서의 전범이 된 저술로 유명하다. 그러면서도 『사기』가 列傳에서 인물과 사건을 특색있게 다룬 역사서였다면, 『한서』는 그 뒤를 이어 개별 왕조사를 다룰 때 보다 객관 사료에 근거한 直筆의 자세를 견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점에서 연암이 “파란과 생색”의 근거를 두 사서의 특징에 두었다고 여겨진다.

이와 함께 (4)에서 확인되듯 작품의 문체를 <서하객전>과 <장백산기>로 예정하고도 있다. <서하객전>은 30세 이후로 중국 전역을 답사하며 20권의 『徐霞客遊記』¹⁸⁾를 남긴 지리학자 徐弘祖(1587~1641)를 입전한 錢謙益(1582~1664)의 傳이다. <장백산기>는 청태조의 명으로 장백산에 封禪한 시말을 기록한 方象瑛의 <封長白山記>를 말한다. 연암이 두 작품을 언급한 이유는 우선 이방익의 기행을 지리학자 서홍조의 광활한 유람 이력에 견주어 이를 조리있게 기술한 전겸익의 서술 방식과 자신이 정조의 명을 받아 찬술하는 상황을 <봉장백산기>에 견주 집필 태도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실제 <서이방익사> 역시 <봉장백산기>와 마찬가지로 찬진의 형식에 맞춘 준비법을 갖춰 작성되었으며, <서하객전>과 같이 (2) “산천 누대와 지나쳐 온 고을의 道里”의 차서를 잃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2)에서 연암이 이방익의 진술과 언문일기의 기록에 드러난 착오에 대해 매우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약간 심하게 말하자면 연암은 이방익의 존재와 노정에만 유의하였다고 할 정도의 태도가 느껴진다. 심지어 표류 사적을 (3) “진부한 것”이자, (2) “따를 필요는 없”는 자료로 지목하고, 이방익의 진술이 아닌 『일통지』와 그 밖의 전기”로 이방익이 경험한 실제 정황을 대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로써 보면 연암의 저술 태도는 이방익의 표류 사실 그 자체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연암은 이방익의 표류 사실을 정조가

18) 근래 김은희·이주노 역, 『서하객유기』(전7책, 소명출판, 2011)가 소개되었다.

말한 좋은 글감으로 삼아 자신이 의도한 새로운 글로 재창조시키는 과정의 호재로 삼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서이방익사>는 제주도민의 奇行을 가지고 일정한 지향이 담긴 (3)“이것(옛 기록)으로 저것(이방익사)을 징협”하는 “진부한 것을 신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1)“파란과 생색”을 지닌 奇文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연암은 이를 위해 여러 역사서를 통한 고증과 함께 제주도 표류민에 대한 기록인 (5)鄭運經(1699~1753)의 『탐라문견록』도 이미 확인하고 있었다. 이는 정운경이 1731년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부친 鄭必寧(1677~1753)을 따라 제주도에 도착해 표류 생활한 그곳 주민들의 구술과 관련 문헌을 정리한 기록이다.¹⁹⁾ 이방익의 표류 노정과 관련해서는 1729년 윤도성과 송완의 대만 표류, 1687년 安南에 표류된 고상영과 1726년 유구로 표류한 김일남·부차웅이 복건성에서 강남을 거쳐 귀환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연암은 『탐라문견록』에 추측해 부연한 것이 많다고 판단하여 크게 참고하지 않은 듯하다.²⁰⁾ 대신 연암은 『說鈴』, 『太平廣記』를 朴齊家(1750~1805)에게 구하고 있으며, 이서구(1754~1825)로부터도 참고할 문헌을 기대했지만 서간 작성의 시점에선 구하지 못한 듯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자료는 『설령』이다. 이는 淸 吳震方(생몰년 미상)이 淸初 諸家の 見聞錄이나 여행기, 筆記類 총62종을 모아서 편찬한 총서로 前·後集(1702년 간행)과 續集(1712년 간행)으로 구성되어 있다.²¹⁾

19) 정운경 지음, 정민 옮김,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서설 참조.

20) 다만 유구 세자 살해와 관련한 내용의 판단은 『탐라문견록』에 근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일독할 때 유구 세자와 관계되는 언급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미지의 해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정도에 그친다. 아마도 연암은 이로부터 유구 세자의 피살이 오래된 풍문의 와전이거나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사실로 단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21) 문준해, 규장각 『설령』 도서해제 참조. 현재 국립도서관과 서울대 규장각에는 후대에

여기에는 유구국과 안남국은 물론 앞서 언급한 방상영의 <봉장백산기>와 함께 林謙光의 『臺灣紀略』, 季麟光의 『臺灣雜記』²²⁾ 등이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 대한 저술도 모아져있어 대만 관계 자료와 함께 중요하였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대에 기록된 자료라는 점에서 연암이 접할 수 있는 해외 지리 관련 정보가 담긴 최신의 긴요한 총서였음에 분명하다.²³⁾ 연암은 이 가운데 임겸광의 『대만기략』으로부터 이방익이 표착한 팽호도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으며, 대만 지역을 소개하는 안설의 절반을 차지하는 분량으로 활용하였다. 이점에서 『설령』이 청 초기의 문헌 총서이자 대만을 포함하는 인문지리 정보서로서 연암 주변의 실학과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연암은 이처럼 정조로부터 저술의 책임을 위임받은 1797년 7월부터 먼 천군수로 부임해 주변에 서간으로 자료를 독촉하던 8월까지 부단한 고심을 경주하였다. 왕명이라는 압박 속에 저술에 대한 자신의 입장 정립에 핵심이 놓였을 것이다. 이때 가장 주목할 대목은 (7)이다.²⁴⁾ 연암이 “이 뜻을 부연하여 넣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뜻”의 함의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야말로 작자로서의 저술 태도와 의식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연암은 이방익의 생활을 조선 사대부들의 (6) “群疑”에 대한 “快破”의 산증인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특기할 필요가 있다. 사대부들의 의혹이란 중국

간행된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22) 문준혜의 해제와 김문식의 선행 연구에 『대만잡기』를 李麟光으로 소개하고 있다.

23) 필자는 『설령』에 관한 조선조 유통 상황이나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아직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지리인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반면 연암이 서하객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어 『서하객유기』도 포착하였으리라 여겨지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24) 김문식은 (7)을 인용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해당 자료를 통해 <서이방익사> 저술의 과정에만 주목한 결과이다. (7)로 집약된 연암의 저술 의도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의 변란을 고대하며 강남 지역이 아직도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논란을 말한다. 바로 북벌론과 연계되는 대목이다.

연암은 인용문의 중략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金昌協(1651~1708)의 <審敵篇>과 金昌業(1658~1708)의 記文을 지목하며 강남 지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상존함을 언급한다. 구체적으로는 吳三桂(1612~1678)의 반란과 해적의 출몰로 인한 청의 동요와 몰락의 가능성을 말한다. 여기서의 해적이란 한때 오삼계와 연합해 청에 대항하다 대만으로 옮겨가 네덜란드인을 몰아내고 해상세력을 구축했던 鄭成功 父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⁵⁾ 이는 청에 저항한 한족 세력을 염두에 두어 현실에 맞지 않는 명의 복권을 기대하던 조선 사대부들의 북벌의식과 연계되고 있다. 그런데 이방익이 다름 아닌 ‘강남’을 거쳐 ‘생활’한 대목에 연암은 착목한 것이다.

연암은 이미 자신의 1780년 사행을 통해 중국의 현실 상황을 대체적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로부터 한족과 만주족의 내부적 갈등은 존재하지만 청 왕조가 전국을 균형있게 조절하며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을 『열하일기』에서 개진한 것이다.²⁶⁾ 하지만 당대 조선의 상당한 지식인들은 아직도 (6)“춘추존양의 의리에 엄격”한 대의명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연암이 몇 세대 앞선 인물인 김창협과 김창업의 주장을 비판한 까닭도 그들의 정세 판단이 당시까지도 사대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연암은 이방익의 강남 여정이 평범한 사신의 공로보다 낫다고 극찬하기에 이른다. 이방익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겠지만 중국의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채 空論만을 되풀이하는 사신들보다 훌륭한 정보

25) 우인수, 『17세기 후반 臺灣 鄭氏海上勢力에 대한 조선의 정보 수집과 그 의미』, 『대구사학』 100집, 대구사학회, 2010.

26)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창작과비평사, 1990.) <제4장 중국 현실의 인식과 북학론> 참조.

를 산증인으로 알려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연암은 <서이방익사>에서 짧지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에 앞서 燕京에 들어간 자가 들은 바로는 해적이 중국의 남해를 가로막고 있어 商旅가 통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방익이 만리 길을 뚫고 지나왔으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도 듣지 못했으니 온 누리가 태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²⁷⁾

왜란에서 일본의 포로가 되어 이방익과 같은 경로로 귀환한 魯認 이후 가장 먼 노정이었음을 추켜세우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서이방익사>의 저술 의도는 연암이 일갈한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 서간에서 연암은 이방익을 조선 사대부의 의혹을 “快破”한 증인이라, “尋常一介之使”보다 훌륭하다 추켜세운 반면, <서이방익사>에서는 전체 노정을 정리하는 말미에 조심스럽게 사건으로 이방익 생환의 의미를 제시한 것이다. 동시기 사대부의 망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찬진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아 주장을 본격적으로 펼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앞서 인용한 서간문의 어투를 감안하여 연암의 의도와 저술 태도를 확인해야 하겠다. 실제로 이후에 출현한 가사 <표해가>와 기행서사 <표해록>을 통독해 보면 이방익의 복건성 이후 여정은 접하기 어려운 중국 산천유람의 기회와 흥취에 더해 놀라움과 기대로 가득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암의 주장과 같이 복건, 절강, 강남 지역의 상황이 안정적이었음을 이방익의 표류와 생환을 다룬 가사에서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²⁸⁾ 연암은 이방익

27) 박지원, <서이방익사>, “先是入燕京者, 聞有水賊, 梗南海商旅阻隔云. 今邦翼貫穿萬里, 未之或聞, 則宇內之昇平可見矣.”

28) 물론 가사의 창작과 향유가 중국의 국제적 정세를 감안한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생환 과정의 자연스런 감정에 더한 새로운 풍경을 표현한 측면이 강할 것

의 귀환을 특정 지역에 대한 희귀한 여정 자료에 주목하기보다, 당대 중국 강남 지역의 현재를 간파함으로써 동시기 조선조 지식층의 미망과 허상에 일침을 가할 수 있었다. 지금 연암이 <서이방익사>에서 취하고 있는 저술 태도를 통해 조선후기 지식층들의 해외인식에 드러난 극단의 격차를 확인하게 된다.

5. <서이방익사> 탄생의 주변 - 결론을 대신하여

부친을 뵙기 위해 오른 항해에서 시작된 표류는 이방익만이 아니라 제 주도민에게는 잦은 사례였다. 정운경과 같은 이는 진작 이에 주목하여 하나의 보고서를 『탐라문견록』으로 작성하고 있음이 그 사례이다. 다만 이들이 표류에서 생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그 과정을 의미있는 정보로 담아 낸 경우도 드물었다. 노인의 『錦溪日記』, 최부의 『표해록』 등이 생환자 자신의 기록으로 남은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일정하게 층위를 달리하는 현상이 조선후기 진행된다. 지금 박지원의 경우에서도 확인되듯 이방익에 대한 관점이 표류 생환의 畵文에 그치지 않고 대외 정세에 대한 조선후기의 현장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후 1801년 오키나와와 呂宋(필리핀)을 거쳐 생환한 우이도의 文淳得(1777~1849)이 丁若銓(1758~1816)을 통해 『漂海始末』로 의미를 부여받고, 李綱會(1789~?)의 『柳菴叢書』와 『雲谷雜著』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되어 상당한 관심을 받은 바 있다.²⁹⁾ 여기에는 실학파로 불리는 일군의 학자들이 관계되고 있음에 주

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실체험자인 이방익 스스로가 중국 강남 지역의 유력 과정에 서 사회적 혼란상을 간취할 수 없었음을 방증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점에서 <표해록>과 <표해가>에 대한 재접근 방법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9) 임형택, 『문명인식과 실학』, <4장 19세기 바다, 실학에서 바다로 열린 學知>, 돌베개,

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연암의 경우는 어떠할까. 연암이라는 특수한 개인의 사례인가. <서이방익사>에 다시 주목해 보자. 연암의 안설에 의하면 “건륭 52년에 林爽文의 난을 토벌하자 임상문의 군사가 패하여 內山으로 들어가니 生番들이 포박하여 바쳤는데 熱河의 文廟 大成門 바른편 벽의 碑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최신 소식이 눈에 띈다. 팽호도에서 대만으로 건너간 이방익의 진술에 대해 대만부를 설명하면서 기술한 내용이다. 대만에 대한 안설은 팽호도 서술과 함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암이 1780년 열하 사행을 다녀온 이후의 일로 직접 견문한 사실이 아니다. 임상문의 난이 발생한 건륭 52년, 즉 1787년 이후 <서이방익사>를 저술하기까지 10년 사이의 일로 연암이 별도의 경로로 접한 내용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사이 열하 사행에 참여한 인사들의 견문을 통해 수용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마침 그 내용이 乾隆帝의 萬壽節에 謝恩副使로 참여한 徐浩修(1736~1799)의 경술사행(1790) 기록인 『燕行紀』 권2 <起熱河至圓明園> 7월 16일 조의 후반에서 확인된다.³⁰⁾ 양쪽의 기록을 확인해 보면 연암이 서호수의 정보를 정리하여 수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이를 통해 연암이 열하 사행에서 중국의 정세를 목도한 후 지속적으로 해외 정보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암은 이후 진행된 사행원들의 연행록 정보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제가, 이서구와 함께 유득공으로부터 <서이방익사>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와 초고 작성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에서 일정한 지적 연대와 정보의 교류

2009.

30) 서호수의 사행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임유경, 「서호수의 『燕行記』 연구」, 『고전문학연구』 28, 2005; 조창록, 「학산 徐浩修와 『熱河紀遊』」, 『동방학지』 135, 2006.

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서호수의 기록까지 섭렵해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조선후기 해외 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끊임없이 진행되던 현상이 <서이방익사> 저술의 저간에 관계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당대 상층 사대부의 인식은 이들 실학파의 조언보다는 淸國과 관계된 이데올로기에 보다 경도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이방익 표류와 관련된 한 편의 글이 완성되는 1개월여의 과정과 연암이 보여준 해외인식의 현장에서 이 시기 지식인들의 노력과 고뇌가 상호교섭하던 상황과 함께 이러한 객관적 현실에 눈감았던 사대부층의 간극을 짐작해 본다.

참고문헌

- 강전섭, 「李邦翼의 『漂海歌』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20집, 한국언어문학회, 1981, 97~113쪽.
-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1~343쪽.
- , 「박지원-북학을 주창한 근대 리얼리즘의 선구자」,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181~209쪽.
-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1~419쪽.
- 김윤희, 「〈표해가〉의 형상화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35~60쪽.
- 김은희·이주노, 『서하객유기』(전7책), 소명출판, 2011.
- 반윤홍, 「조선후기 비변사의 국외정보 파악 양상」, 『한국사학보』 20, 고려사학회, 2005, 109~138쪽.
- 박종채 저, 김윤조 역주, 『역주 과정록』, 태학사, 1997, 1~430쪽.
- 성무경, 「耽羅居人 李邦翼의 <漂海歌>에 대한 研究」, 『탐라문화』 12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2, 1~15쪽.
- 우인수, 「17세기 후반 臺灣 鄭氏海上勢力에 대한 조선의 정보 수집과 그 의미」, 『대구사학』 100집, 대구사학회, 2010, 163~187쪽.
- 柳夢寅, 신익철·이형대·조윤희·노영미 옮김, 『於野談』(전2권), 돌베개, 2006.
- 윤치부, 『한국해양문학연구』, 태학사, 1994, 1~306쪽.
- 임유경, 「서호수의 『燕行記』 연구」, 『고전문학연구』 28, 2005, 379~410쪽.
- 임형택, 『문명 의식과 실학』, 돌베개, 2009, 1~262쪽.
- 전상욱, 「이방익 표류 사실에 대한 새로운 기록」, 『국어국문학』 159집, 국어국문학회, 2011, 121~146쪽.
- 정민·박철상 역주, 「『연암선생서간첩』 원문 및 역주」, 『대동한문학』 22, 2005, 344~393쪽.
- 정운경 지음, 정민 옮김,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1~271쪽.
- 조창록, 「학산 徐浩修와 『熱河紀遊』」, 『동방학지』 135, 2006, 171~199쪽.
- 최강현, 「표해가의 지은이를 살핌」, 『어문논집』 23집, 민족어문학회, 1982, 67~74쪽.

ABSTRACT

A Study about Yeonam Park Ji-won's <Seoyibangiksa>, Focusing on
Awareness of Overseas in Late Chosun Dynasty

Shin, Sang-phil

Korea is located at the perimeter of East Asia and its geopolitical condition had certain limitation, which was that Korea should collect all information through China. It was a chronic issue at the time caused by exchange with foreign countries only through land route. Exchange through sea route was required to overcome this limitation: however, it was very difficult in reality. Therefore, Joseon was yearning for information on overseas. During such period, information on foreign countries carried by the returnees, who survived a drift by chance, attracted keen interest of the intellectual class at the time.

Seoyibangiksa (書李邦翼事) is one of such books, which was written by Yeonam Park Ji-won by the order from King Jeongjo. A person named Yi Bang-ik had met a storm on the sea and drifted to Taiwan. He came back to Korea through Jiangnan (South China) area and Beijing (North China). The route took by Yi Bang-ik in returning to home was quite new knowledge for Joseon intellectuals. At the time, King Jeongjo had given a royal command called Munchebanjeong (which was kind of downgrading the importance of writings on practical matter); however, Park Ji-won did not write Seoyibangiksa in accordance with royal command or took it as a simple interesting story.

Park Ji-won tried to read contemporary reality through the situation in Jiangnan and surrounding area in China experienced by Yi Bang-ik. He raised the issue again toward the vain wish of 'Bukbeol' (expedition to conquer the north) by some Joseon nobilities through the return route of Yi Bang-ik. It can be understood as the combination result of intellectual interest of Bukhak School scholars, such as Park Ji-won,

Park Je-ga, Yi Seo-gu, Yoo Deuk-gong and Seo Ho-su, with the return process of a drift survivor. Further,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it as a reconfirmation process of overseas awareness of intellectuals in late Joseon Period and the site of mutual exchange.

Key Words Yeonam Park Ji-won , Seoyibangiksa(書李邦翼事), drift, overseas awareness, Bukhak School scholars, expedition to conquer the north

논문투고일 : 2013. 04. 30
심사완료일 : 2013. 05. 28
게재확정일 : 2013. 06. 02